

# 올 상반기 펀드 순자산 800조 육박... 채권형·MMF 집중

**금투협 '2021 상반기 펀드시장동향'**  
6월말 기준 793조4000억원 집계  
작년 말 대비 73조2000억원 증가  
투자처 잃은 대기·정책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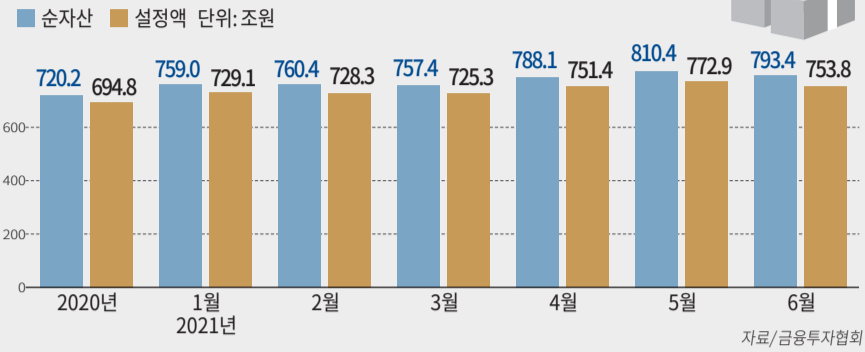
올 상반기 전체 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8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펀드와 MMF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전체 펀드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14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펀드시장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펀드 순자산은 793조4000억원, 설정액은 7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각각 73조2000억원(10.2%), 59조원(8.5%) 증가한 수치다.

금투협은 "머니마켓펀드(MMF) 및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상반기 동안 전체 펀드시장에 총 45조7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공모펀드는 일정부분 성장률이 회복

전체 펀드 순자산 및 설정액 변화 추이



하면서 지난해 말 대비 순자산이 14.0% 늘어났다. 반면 사모펀드는 지난해 이어 성장률이 7.9%로 둔화됐다. 유형별로는 순자산총액 기준 단기금융 18.0%, 채권형 16.7%, 부동산펀드 15.3%로 조사됐다.

주식형의 순자산 총액은 전년 말 대비 9조4000억원(10.3%) 증가한 10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주식형은 경제 재개 기대감과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증시가 반등하자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가 큰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순

자산은 6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8000억원(4.4%) 증가했다.

해외주식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하고, 추가 부양책 기대 등으로 증시 상승세를 보이며 3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6조6000억원(23.8%) 늘어난 수치다.

채권형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에도 순자산 총액은 13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은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 등으로 채권

가격 하락 우려에도 단기물을 중심으로 법인과 기관의 자금 집행이 이어졌다.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면서 공모주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채권혼합형 순자산도 6조9000억원(48.4%) 늘어났다.

해외채권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778억원 감소세를 보였다.

MMF는 시중 유동성 증가와 투자대기자금 유입 등으로 142조5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16조2000억원(12.8%) 늘어난 수치다.

금투협은 "올해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과 정부 정책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난 5월말 월말 순자산 총액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16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지난달에는 분기말 자금 수요 등으로 소폭 감소하면서 142조5000억원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간접의 경우 뉴딜펀드 출시 등으로 상반기 4조1000억원의 자금이 새로 유

입됐다. 순자산은 전년 말 대비 8조1000억원(15.9%) 증가했다. 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등으로 4조6000억원 자금이 순유출됐다. 순자산도 세부유형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이어갔다.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 순자산은 각각 121조원, 11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7조9000억원(7.0%), 3조8000억원(3.6%) 많은 수치다. 코로나19로 실사 어려움과 사모 대체펀드 부실 사태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단기금융의 순자산 총액은 14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올렸다.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생상품은 세부유형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순자산 총액은 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원(1.4%) 감소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서울 정비사업 수주, 하반기 불 붙는다

**현대·DL이앤씨·포스코·GS·대우 등**  
북가좌 6, 노원 백사마을, 송파 마천4  
시공사 선정·입찰 앞두고 물밑경쟁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수주를 놓고 올 하반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6구역 재건축(1970가구)사업이 이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북가좌동 372-1 일원 10만4656㎡에 지상 24층, 22개동, 1970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규모는 약 4800억원이다.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조합도 8월 중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노원구 중계본동 104일대 18만6965㎡ 땅에 지하 5층~지상 20층의 34개동을 짓는다. 전용면적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DL이앤씨 사옥 D타워 돈의문 전경. /DL이앤씨

59~190㎡로 1953가구 아파트와 지하 4층~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 136개동, 484가구 등을 조성한다. 사업비는 약 5800억원 규모다.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한양·코오롱건설 등이 축하 현수막을 거는 등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8월 4일 시공사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날 설명회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

씨,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롯데건설, 효성중공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는 송파구 마천동 323 일대 6만65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3층 10개동 아파트(13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은 3835억원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은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노리고 있다. 이는 신림동 808-495 일원 22만여㎡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42개동짜리 아파트 3961가구와 오피스텔 100실, 근린생활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최근 용적률이 기존 241.7%에서 259.8%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조합과 서울시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입찰 마감된 노원구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장도 앞서 HDC현대산업개발 단독 입찰로 자동 유찰돼 조만간 재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2 일대 8만6432㎡에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7개동 13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93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1위는 DL이앤씨로 1조7900억원을 기록했고 ▲대우건설(1조7400억원) ▲쌍용건설(1조3900억원) ▲현대건설(1조2900억원) ▲포스코건설(1조2731억원) ▲GS건설(1조8900억원) 등의 순이다. 그 뒤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현재까지 8765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으며 현재 안산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예상공사금액은 1418억원으로 알려졌다며 수주면 1조클럽에 가입될 전망이다. /정영우 기자 ywj964@



이라크 알 포(Al Faw) 방파제 전경. /대우건설

### 대우건설 이라크 알 포 방파제 올 토목구조물 '대상'

대우건설은 이라크에 건축한 '알 포(Al Faw) 방파제'가 대한토목학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알 포 방파제는 이라크 남부 바사라(Basrah)에 있으며 대우건설이 총 8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한 15.5km 규모의 사석방파제다.

이라크 정부는 총 사업비 53조원을 투입해 2041년까지 알 포 신항을 세계 12대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알 포 방파제는 이라크 정부의 이러한 계획 중 1단계 사업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알 포 신항 건립의 후속 사업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연결도로, 준설·매립공사 등 총 3조원 규모의 공사를 추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토목구조물 공모전' 대한토목학회가 2003년부터 국내 기업이 설계·시공한 토목구조물을 심사해 상을 부여한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대우건설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해수부)에 '이라크 알 포 신항만개발 기본계획 검토 및 항만 운영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정부, 해수부와 협력해 이라크 알 포 신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시 건설 및 중공업, 설계, 기계전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동반 진출을 돕고 해외 항만 위탁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혁 수습기자 wonster@

## 서학개미, 美 대형 기술주 ETF 담았다

### 해외주식 Click

S&P500 추종 '스파이더 ETF'  
311억 어치 순매수... 16.49% ↑

서학개미들이 대형 기술주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포 속에서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최고치를 경신했다. 1분기 실적 좋았던 성장주가 시장을 이끄는 추세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5일~7월 11일) 국내 투자자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더(SPDR S&P 500) ETF를 2727만달러(약 311억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순매수액이 각각 2651만달러(약 303억원), 2645만달러(약 301억원)로 뒤를 이었다.

스파이더 ETF는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성장주 중심의 ETF다. 애플(5.9%), 마이크로소프트(5.6%), 아마존(4.05%) 등 대형 기술주를 담고 있으며, 주가는 연초 대비 16.49% 상승했다.

8위로 하락했던 로블록스는 지난주 다시 4위로 반등했다. 로블록스는 자신이 만든 레고 형태의 아바타로 게임을 하거나 직접 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최근 소니 뮤직과 제휴를 맺고 메타버스 내 음악 사업 확장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창업자 베이조스가 물러난 아마존은 1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지난주 아마존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11조원 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을 취소했는데, 아마존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영국에서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터인 '캠브리지-1'을 가동하기 시작한 엔비디아는 순매수 금액 35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슈퍼컴퓨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뇌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신약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디디추싱은 상장 직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중국 정부의 뜻을 거슬러 상장을 유예하지 않은 '괘씸죄'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디디추싱의 25개 앱은 스토어에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지만 저가매수세로 주가는 일부 회복 중이다.

/양유경 수습기자 noon@